파라과이 선교 소식(4/4분기)

어느새 2013년 한 해도 저물어 가는군요.
돌아오는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가 당회장 목사님과 명성교회의 모든 선교동역자님들 위에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한국은 영하를 오르내리는 추위가 계속되고 있겠지만 이곳 파라과이는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마다 경험하는 성탄절입니다만 여기는 해마다 무더운 성탄절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이 곳 성탄절이 잘 적응이 안되었지만 지금은 무더운 성탄절이 좋아 보입니다. 사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 베들레헴이 추웠는지 더웠는지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 나라나 각 지역마다 자기 형편과 사정에 맞게 아기 예수 탄생은 각기 다른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캐롤, 추리,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등은 성탄절에 눈이 자주 내리는 서구의 기독교가 만들어 낸 성탄절 문화들이지요. 그러나 **파라과이 성탄절 문화는** 조금 톡특합니다.

파라과이 교회의 성탄절 행사는 보통 22일경에 끝나고, 정작 성탄 이브와 당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다가오면 가정, 회사, 관공서 할 것 없이 모두 **Pesebre (아기 예수가 탄생한 마구간 모형)**를 자신들의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만들어 장식해 놓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그 앞에서 준비된 특별한 음식과 함께 좋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밤 12시가 가까워지면 아기 예수님께 소원을 비는 기도를 한 뒤, 정각 12시가 되면 서로 축복과 축하의 볼맞춤(키스)의 인사를 나눕니다. 더 정열적이고 과격한 사람들은 총과 폭죽을 쏘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젊은이들은 동네 파티장으로 향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처럼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오지 않고 가족과 조용히 지내는 것은 참 좋은 풍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라과이에서 하는 이러한 풍습이 오히려 아기 예수 탄생했던 당시 상황과 더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파라과이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저는 지난 10 월 24 일 한국에 입국해서 글로벌 디아스포라 선교대회, 부산 WCC 총회, 저의 어머님 방문(제주제광원), 방콕 PCK 선교 Summit, PCK 선교사회 임원회, 옥천 PCK 선교연구위원회에 참석한 다음 11 월 25 일 한국을 떠나 파라과이 선교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빠듯한 일정에 한편으로는 마음에 부담도 되고 피곤하기도 하였지만 여러 대회와 모임에 참석하면서 많은 은혜와 영적 충전을

받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귀한 시간들이어서 기뻤습니다. 한국에 있을 동안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여러 교우들과 선교 동역자님들께 일일이 연락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1. 교회 사역

저는 지금 파라과이 새생명교회를 현지 목사인 Rafael Fariña 목사에게 위임하고 엄차수 선교사님 내외와 함께 지교회중 가장 연약한 Emanuel 교회(Eulogio 목사 시무)를 돕고 있습니다. Eulogio 목사는 경험은 미약하지만 그의 가족(사모, 딸 2 명)과 함께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목회자협의회 송년 모임)

지난 주일(15 일) 저녁에는 Emanuel 교회에서 파라과이 목회자협의회 산하에 있는 **페르난도델라모라시**의 목회자와 가족 60 여명이 송년 예배를 드리며 저녁 식사를 나누며 단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도시의 북쪽 지역에서는 Emanuel 교회가 중심이 되어 파라과이 목회자들과 여러 가지 사역을 협력하려고 합니다.

2. 남미기독교 학교사역

남미기독교학교는 12 월 12 -13 일에 9° Grado(중 3)와 3° Curso(고 3) 졸업식을 갖고 방학에 들어 갔습니다. 12 월-1 월 약 2 개월 동안 방학을 보낸 다음 2014 년 2 월 6 일 학교 입학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 이사진들과 교장단들은 새로운 학생 모집, 교사들의 전출입으로 인한 새로운 교사를 채용, 그리고 학교의 모든 시설들을 보수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수석 졸업하는 학생에게 상장수여)

부서진 책걸상 수리, 학교 청소(청소용역회사에 의뢰), 외벽에 페인트 칠, 실내 채육관을 짓기 위한 기초 공사, 학교 도서관 시설 그리고 학부형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복도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학생등록금 만으로는 다 충당할 수 없고 후원교회에서 보내주시는 선교후원금을 모아서 보태려 하지만 계획하고 있는 분양의 몇 %를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3. 파라과이 장로교신학대학

금년에는 행정 착오로 본 신학대학 본과 학생들이 파라과이 복음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점을 다 이수하지 못해서 졸업을 못하고 기초반 학생들 6 명만 졸업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졸업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내년에 복음대학교가 요구하는 학점을 딴 후에 졸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1 월 7 일 신학대학 이사회 총회를 해서 이사진 개편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4 년 동안 섬겼던 이사장직을 물러나고 평이사로 봉사하려고 했는데 저를 부학장으로 선임을 해서 다시 한번 다른 자리에서 장로교신학대학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4. 연말 연시 수련회

저희 선교부에서는 연말 연시에 다음과 같은 행사와 수련회를 같습니다.

2013 년 12 월 – 이웃 초청 성탄 축하 행사(Emanuel 교회, 새생명교회)

2014 년 1 월 – 지교회 목사 가족 수련회, 지교회연합 청소년 수련회, 남미기독교학교 교사수련회, 이들 행사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5. 2014 년 대회 및 세미나

저가 본 교단 세계선교사회장및 남미선교사회장으로 여러 대회와 세미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의 대회와 모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 2014. 4.17-18 : 장신대 선교학교수와 PCK 선교사간의 선교 포럼(서울, 장신대)
2) 2014. 4. : 세계선교부 실행위원과 세계선교사회 임원과의 연석회의(서울, 총회본부)
3) 2014. 5. 27-30 : PCK 남미선교사대회(브라질, 이과수)
4) 2014. 7.14-17 : PCK 선교사대회및 총회(인천, 송도 예정)
5) 2014. 7.23-8.13 : 박중호 목사초청 남미크리스천 코칭세미나(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페루)

6. 가족 상황

지난 9 월 결혼한 딸 임사라는 지금 남편 따라 뉴욕에 가서 살고 있으며 뉴욕퀸즈장로교회 영어 예배부에 참석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이계연 선교사는 많이 회복되어가고 있고 아들 사무엘은 전보다 파라과이에 적응을 잘하고 있지만 아직도 밖에 나가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7. 다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 파라과이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2) 새로 사역을 맡게 되는 Emanuel(임마누엘)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3) 남미기독교학교를 위해서 (2014 년 새학기 준비, 400 명 이상의 학생들의 입학, 좋은 교사들의 영입)
4) 파라과이 장로교신학대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저의 부학장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5) 연말 연시의 파라과이 선교부 행사와 수련회를 위해서
6) 2014 년도에 저의 PCK 선교사회장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7) 엄 선교사님의 사역과 저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013 년 12 월 20 일

파라과이에서 임성익 드림